

1. 해외대학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서류는 학교에서 주시는 양식을 그대로 작성했고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학교에서 영어인터뷰 연락이 왔고, 그 면접에서 합격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와 학교 담당자인 Chris가 연락을 하면서 다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류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외 활동, 공모전 이력 등을 기재했습니다.

2. 비자 준비과정

사실 제가 갔을 당시 SNS검열 정책으로 인하여 비자인터뷰가 약 한달간 닫혀있을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인터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티켓팅하듯 예약에 성공 후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 질문은 무슨 학교인지, 왜 가는지, 아버지 직업, 회사를 여쭙보셨습니다. 아무래도 F1비자이고 학부비자이기때문에 앞 인터뷰하신분들보다는 수월하게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이점은 유학생들 대상으로 SNS검열을 한다고 했던 시즌이라 결과가 바로나오진 않았고 그린카드를 받고 1-2주 뒤에 비자를 수령하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SNS계정을 DS 2019에 입력했고 비공개 계정도 모두 공개로 돌려야하며 잘 쓰지않는 SNS(Ex- linkedin)를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그러다보면 미국국무부라고 쓰여있는 계정이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는 3개의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있는 정말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렇다보니 학생들끼리 웬만하면 얼굴은 알고지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관이 해리포터같다고 홍보를 많이하는 편입니다..(예뵤요). 자고 일어나서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5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이 쓰는 돔은 진짜 깨끗한 편이고 화장실도 6명이 하나 공유라 큰 불편함은 없이 지냈습니다.

지리적 위치 같은경우는 같은 Philly인 드렉셀, 유펜등보다는 외곽에 있지만 여행하면서 만난 다른 미국 교환학생들보단 교통이 굉장히 편한곳에 있는 편입니다. 일단 마을 버스를 타고 Center city로 이동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체스넛힐 시내에서 Septa로 환승해서 가면 더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보통 친구들이랑 놀때는 우버나 리프트를 불러서 나눠서 내는게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Chestnuthill 자체가 별장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이고, 필리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스넛힐 시내는 정말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카페, 맛집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여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도 늦은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혼자다니는건 피하는걸 추천합니다.

현지 날씨는 저는 8월말-12월 초까지 필리에서 지냈는데, 8월은 적당히 더운날씨이며 12월은 추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특이점은 제가 가고 1월쯤엔 정말 큰 폭설이 왔다는 점? 친구들에게 많은 연락이와서 기억에 남습니다.

4. 수업 (수강신청, 수업 진행 방법 등)

수강신청은 미리 한국에서 하고 가는데 그 내역대로 잘 진행되는것인지 크리스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정정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직접 가서 정정을 해야되고 그 과정이 될지 안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최종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학기동안 들어야되는 수업이기때문에 내가 듣고싶은 수업은 미리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청강도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신청한대로 수강신청이 모두 되진않아서 수업변동이 컸던 편인데 Fall Semester같은 경우는 OT때 어디로 정정하러 찾아가야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분이란 잘 얘기하고 정말 듣고싶은 수업은 싹싹빌면 ㅎㅎ 교수에 따라 증원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수업은 보통 강의처럼 진행되고 대부분의 수업이 3학점이라면 1.5시간씩 일주일에 월,수/ 화,목 이런식으로 나뉘지는 편입니다.

5. 숙소 (기숙사 신청, 기숙사 시설, 외부 숙소 정보 등) 및 식사

기숙사는 한국에서 미리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신청이 되고, 가자마자 Chris를 만나면 키를 주십니다. 기숙사 시설은 보통 교환학생은 가장 비싼 Fittments에 배정이 되는데 다른 동같은 경우에는 공용샤워실, 공용 화장실이지만 피츠먼트는 보통 4-6명이 하나의 커먼룸을 공유하고 저희 방은 샤워실 두개,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방은 2명이 1개의 방을 공유합니다. 저희 방이 좀 많은 편이었고 보통은 2명, 2명 방쓰고 4명이 하나의 화장실, 커먼룸 공유하는식으로 이용합니다. 시설은 1층에 세탁실(그리 깨끗하진 않으나 무료입니다.), 풀테이블이랑 벤딩머신이 있는 룸, 티비가 있는 룸이 있는데 저희는 다같이 당구도 자주치고 보드게임, 영화 관람등 기숙사 이용해서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외부 숙소는 저는 따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 체코친구 같은 경우는 off campus의 이모집에서 지내고 차로 학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비, 교과서비만 냈다고 들었고, 보통 돔과 밀플랜이 패키지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랑 같이 밥먹을일 있으면 끼니당 8불정도 내고 식사했습니다. 이런식의 진행도 가능한 하지만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열심히 놀러나가기에는 기숙사에서 지내는것이 나은편입니다.

식사는 밀플랜이 포함되어있었고 아마 14끼, 17끼중에 선택이었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더 적은 플랜을 선택하면 교내 스타벅스나 매점에서 이용가능한 크레딧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식사는 스타벅스에서 베이글, 커피, 과일 세트로도 교환가능한데 정말 유용합니다 !!

6.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부대시설은 아까 기숙사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Gym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Fournier홀 안쪽으로 들어가면 체스,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자주가서 놀았습니다. 제가 정말 애용했던것은 학교 셔틀인데 학기초에 앱을 알려주는데(잘 맞지는 않습니다..)시간표를 확인하고 버스를 타면 됩니다. 택시비 없이 타겟, 아울렛, 홀푸즈를 갈 수 있다는게 정말 큰 이점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이랑 친해지면 가끔 Wawa도 들려주는데 부탁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학기 초에 동아리 설명회? 같은걸 광장에서 하니깐 눈여겨 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저는 제 친구가 international club을 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게임하고 놀았는데 Sepho를 찾아서 그 친구가 운영하는 동아리에 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활성화 되어있는 동아리는 La voz latina라고 제 친구들중에 Latina, Latino나 스페인어권 문화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타코트럭을 부르거나, 댄스 강사를 초청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 등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니 그 동아리에 지원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Outlook을 알림설정해두면 학교에서 메일이 정말 많이 오는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으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면 많이들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7. 해외대학 International Office (위치, 담당자, 받은 도움 등)

위치는 Fournier hall 끝에 Chris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분이 유학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헤쳐나가야하는 일들이 크리스의 도움 없이도 제가 다른 부서를 찾아간다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같이 다니던 약 10명의 교환학생들이 벨기에, 네덜란드어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 특성상 같은 교환학생이지만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크리스가 그 부분에서 저의 영어실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셔서 멘탈 케어적인 부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현지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고, 많은 파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Culture shock은 미국은 담배피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많은 친구들이 대마를 핀다는 점 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다보면 대마를 권유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텐데 반드시 거절해야합니다.

안전 상 유의사항도 보통 파티나 Off campus에서 술을 먹다가 많이 일어날텐데 만 21세 미만이면 술은 안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Philly는 만 21세 부터 술이 허용됩니다. 법규에 따라서 주의하여야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보험도 꼭 들어야합니다.

9.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인 의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보낸 교환학생 기간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와 토론 수업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즉석 발표에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발표 수업이 있을 때마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토론과 발표를 매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미국의 AI 기업을 설정해 프랑스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발표 내용도 탄탄했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주고받아서 더 긴장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발표에는 모든 발표 수업에서 A+를 맞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제가 혼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동양인을 많이 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로 친구들이 말하면 다 알아듣지만 교환학생 친구들이 본인의 모국어인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대화에 전혀 끼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학교생활에 익숙해졌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경제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큰 자신감을 얻었고, 교환학생 담당자인 크리스가 지난 7년간 한국에서 온 학생중에 너가 제일 적응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고 해주셔서 정말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성장하게 만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차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심코 편견이 담긴 표현을 사용해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세계가 더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람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어디서든 살아남고, 적응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이어질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의 시간은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 얻은 기억과 경험을 붙들며 앞으로의 삶도 더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10. 관련사진

